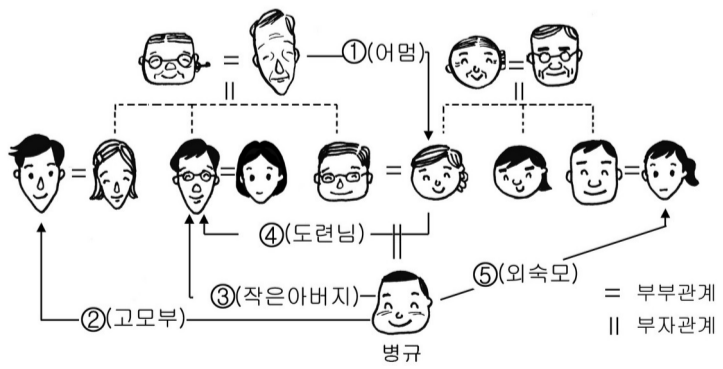


언어 영역

[1 점]

자 한다. 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6. (물음) 이 대담에서 뉴스를 인용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



다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를 종합하여 설정할 수 있는 논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국민들의 쌀 소비를 늘려 농촌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정부의 정책적 방안은 무엇인가?



ㄱ-1, ㄴ-2, ㄷ-2

언어 영역

↓

↓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

(나)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돈쳐 오르는 아침 날 빛이 짝질한
은결을 도도네.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르도른 숨어 있는 곳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다)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이 불어도 흔들리고
이 지나도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 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나리고
숲은 말없이 잠드느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가 어지러울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노라.

(가)

- 김광섭, 마음 -



언어 영역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이라는 말이 본래의 뜻과는 달리 '정확하다', '완벽하다' 또는 '좋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혼란은 오히려 과학이 무엇인지 알기 힘들게 만들었고, □과학 방법에 충실한 과학을 그렇지 못한 유사 과학과 구별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흔히들 '과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학의 내용은 항상 완전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분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과학에 대해 이러한 정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이 궁극적으로 진리인지를 가려내는 능력과 방법이 없다면, 결론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의해 '과학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결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의해서 가려내야 한다. 어떤 결론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그 결론이 유도되는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이라 함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과학을 과정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때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과학 방법이다. 과학 방법은 귀납법과 연역법이라고 하는 큰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귀납법은 실험, 관찰, 통계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 원리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반면에 연역법은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공리에서부터 출발하여 논리적 추론에 의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또한 과학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문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과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추구해 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얻은 결론이므로 □인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결론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과학 발전의 과정에서 많은 이론이나 학설들이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에 의해 부정되었다. 인류가 알아낸 가장 완벽한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했던 뉴턴 역학도, 상대성 이론도 양자론에 의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했다.

충실하게 과학 방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결론도 이와 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과학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얻어 낸 결론이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없는 분야에서 상반된 결론들이 나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분야의 특성상 엄밀하게 과학 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이런 오류가 자주 빚어지는 것은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선 선비 중에는 은일(?)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었다. 은일은 시대를 난세로 인식할 때 취하는 길이다. ㉠어지러운 시대의 정치판에서 자신의 머리와 지식이 난세를 연장시키는 데 악용될 소지를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숨기는 것이었다.

부딪히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름길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조선 선비의 사회 진출 경로는 크게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는 경우와, 산림(?)으로서 초야에 묻혀 공부에만 전념하다가 관리로 특채되는 경우, 그리고 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하는 음직(?)으로 나눌 수 있다.

나아갈 수 있었다.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자기네 정파 혹은 학파의 인물을 널리 등용하게 된다. 이 때 정계에 등장한 이들이 바로 특채 산림이다.

흩어진 국문을 단합하고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바로 재야 산림을 등용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국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신선하다는 이점이 있었고, 재야에서 갈고 닦은 학문에 대한 기대까지도 모을 수 있었다. 17세기에는 산림이 국가의 중추 역할을 했고, 그만큼 대접도 받았다. 그들은 국란 후유증의 극복과 국민 단합, 그리고 국가 재건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관료를 지향하는 조선 선비의 진로에는 음직도 있다.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덕으로 얻는 벼슬을 음직이라고 한다. 덕망 높은 인사가 죽은 뒤에, 혹은 반정 등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과거의 정권으로부터 핍박받아 죽은 인사의 후사(?)를 찾다가 그 자손이 초야에 묻혀 있다고 하면, 그 조상에 그 자손일 것이라 여겨 벼슬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음직은 대부분 미관말직(?◆?)에 그친 데다가 당사자들 스스로가 음직을 떳떳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음직으로 출발했더라도 다시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상식으로 여겼다.

언어 영역

<p>- 정몽주의 어머니 -</p>	<p>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틀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p> <p>이렁공 더렁공 ㅎ·야 나즈란 디내와손터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ㅅㄴ ㅅ 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p> <p>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띄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p> <p style="text-align: right;">- 청산별곡 -</p> <p><small>* 가던 새 : 갈던 밭, 또는 날아가는 새. ** 잉무든 장글란 : 이끼 묻은 쟁기를, 날이 무디어진 병기(?)를.</small></p>
<p>- 월산대군 -</p> <p style="text-align: right;">- 송 순 -</p>	<p style="text-align: right;">이 내 눈에</p> <p> 쌓인 잠아</p> <p style="text-align: right;">검치두덕* 이</p> <p> 내 잠아</p> <p style="text-align: right;">오늘 아침 다시</p> <p> 오네</p>
<p>- 원천석 -</p> <p style="text-align: right;">- 맹사성 -</p>	<p> 구태여 년 갈 데 없어 이렇드시 자심</p> <p style="text-align: right;">(??)하노</p> <p style="text-align: right;">월명</p> <p> 동창(???) 혼자앉아 헛되이 보내면서</p>
<p style="text-align: right;">그런</p>	<p style="text-align: center;">사람 있건마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철령 높은 봉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ㅅ???)를 비 삼아 띄워다가 넘 계신 구중 심처(???)에 뿌려 본들 어떠리</p> <p style="text-align: right;">- 이항복의 시조 -</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p> <p>떨위랑 ㄷ·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p> <p>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p> <p>가던 새 가던 새* 본다 틀 아래 가던 새 본다</p> </div>	<p>무상 불청** 원망 소리 올 때마다 듣는고 석반을 거두치고 황혼이 대듯마듯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할라 마음먹고 언하당*** 황혼이라 섬섬옥수 바삐 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발을 풀어내어 드문드문 질긋 바늘 두어 팜 뜨듯 마듯 난데없는 이 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아래로 솟아온가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슨 요수 피우는고 맑고 맑은 이 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 잠노래 -</p> <p><small>* 검치두덕 : 욕심이 언덕처럼 쌓인. ** 무상 불청(???) : 괜히 청하지도 않았는데. *** 언하당 :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small></p>

성진이 돌아와 밤에 혼자 빈방에 누우니 팔 선녀의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얼굴빛은 눈에 아른거려 앞에 앉아 있는 듯, 옆에서 당기는 듯 마음이 황홀하여 진정치 못하다가 문득 생각하였다.

'남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면 백만 대군을 거느려 적진에 횡행하고, 들어서면 백관(??)을 장악하는 재상이 되어 몸에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황금으로 만든 도장을 차고,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달래며, 눈에는 아리따운 미색을 희롱하고, 귀에는 좋은 풍류 소리를 들으며, 영화를 당대에 자랑하고 공명을 후세에 전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대장부의 일일 텐데, 슬프다, 우리 불가는 다만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과 백팔 염주뿐이라,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구나.'

이력저력 잠을 이루지 못하여 밤이 이미 깊었다. 눈을 감으면 팔 선녀가 앞에 앉았고 눈을 떠 보면 문득 간 데가 없었다.

성진이 마음에 뉘우쳐 생각하되,

①불법(??) 공부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제일인데 사사 로운 마음이 이렇듯 일어나니 어찌 나의 앞날에 해롭지 않겠는가?

하고, 즉시 향로에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염불을 하였다.

이 때 홀연 창 밖에서 동자(??)가 급히 말하되,
"사형(??)은 주무십니까? 사부(??)께서 부르십니다."

성진이 크게 놀라 생각하되,
'깊은 밤에 나를 부르니 반드시 연고가 있겠구나.'

하고 동자를 따라 바깥 들어가니 대사가 모든 제자를 거느려 있는데 촛불이 대낮 같았다.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짖되,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성진이 크게 놀라 신을 벗고 뜰에 내려 엎드려 가로되,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십 년이 넘었지만 일찍이 한 말도 불순하게 한 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이르되,

"네 용궁에 가 술을 먹었으니 그 죄도 있거니와 오다가 돌다리 위에서 팔 선녀와 함께 언어를 수작(??)하고 꽃을 던져 희롱하였으니 그 죄 어찌 하며, 돌아온 후 선녀를 그리워하여 불가의 경계(??)를 전혀 잊고 인간 부귀를 생각하니 그리하고서 공부를 어찌 하겠느냐. 네 죄가 중하여 이곳에 있지 못할 것이니,

언어 영역

네 가고자 하는 데로 가거라."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가로되,

"스승님! 저에게 진실로 죄가 있지만 주께(?)를 파(?)한 것은 용왕이 괴롭게 권해서 마지 못해 한 것이고, 선녀로 더불어 언어를 수작하고 꽃을 던져 희롱한 것은 길을 빌리기 위함이었어서 각별히 부정한 말을 한 바가 없었고, 선방에 돌아온 후에 잠시 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였으나, 마침내 스스로 뉘우쳐 뜻을 바르게 하였습니다. 제자에게 죄가 있으면 사부께서 회초리로 때려 꾸짖으실 뿐이지 어찌하여 차마 내치려 하십니까? 사부님을 우러르기를 부모같이 하여 제가 십이 세에 부모를 버리고 사부님을 좇아 머리를 깎은 이후, 연화도량(?)이 곧 제 집이니 저를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대사가 이르되,

"네 스스로 가고자 하기에 가라 하는 것이니 네 만일 있고자 하면 뉘 능히 가라 하겠느냐? 네 또 말하기를,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하는데, 너의 가고자 하는 곳이 너의 갈 곳이니라."

대사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황건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홀연 공중으로부터 신장(?)이 내려와 명령을 기다리니,

대사가 분부하되,

"네 죄인을 영거(?)하여 풍도(?)에 가 교부(?)하고 오너라."

〈뒷부분의 줄거리〉 성진은 풍도로 간 후 팔 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된다. 꿈 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난 성진은 이후 팔 남자를 차례로 만나 두 명의 처와 여섯 명의 첩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꿈에서 깨어난다. 이후 성진과 팔 선녀는 대사의 설법으로 불생 불멸의 대도를 얻어 극락 세계로 간다.

- 김만중, 구운몽(?) -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 -

김소월, 산유화(???) -

- 신석초, 바라춤 -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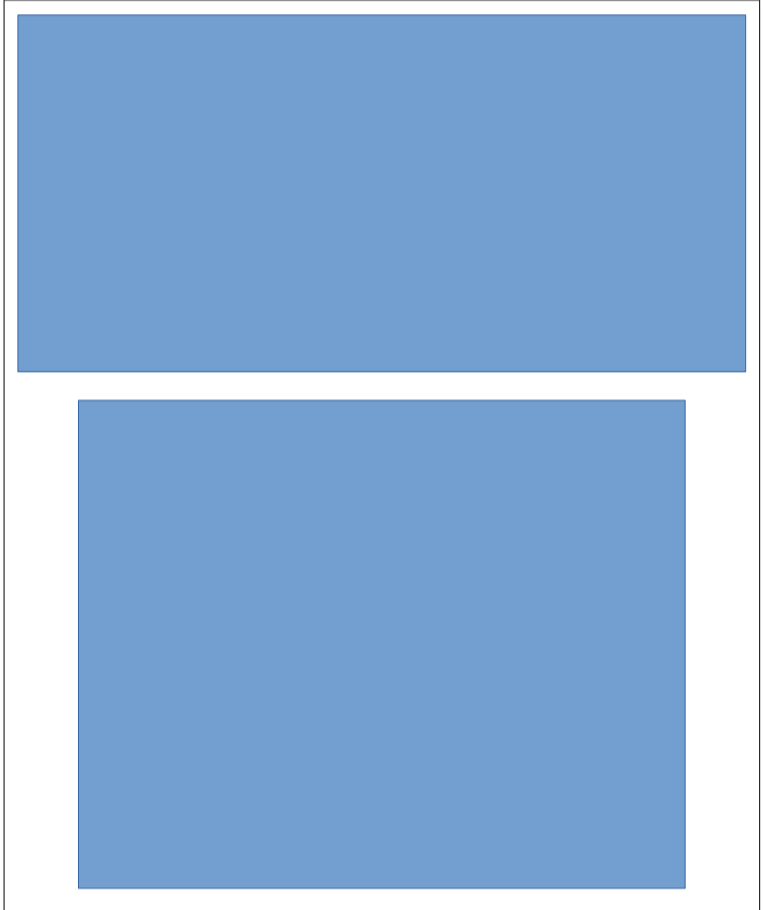
40. <보기>는 위 글과 관련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한 내용이다. 학생의 대답 중, 글쓴이의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복지 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적은 이득을 보게 될 경우, 그 차이만큼 불필요하게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사회 전체를 위해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자유에 맡겨둘 때보다 그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개인들에게 민간 부문의 의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때보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은 전체적으로 높아진다. 왜냐 하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이 높아져야만 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소극적 자유는 줄어들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적극적 자유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소되는 효용이 적극적 자유로부터 증가되는 효용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 소극적 자유의 제한이 적극적 자유를 확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용이하다면 이를 사회적으로 합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언어 영역

다음 그림 A와 B는 우리가 흔히 동양화, 서양화라고 하는 그림이다. 이들은 언뜻 보기에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것일까?



그 차이를 있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그림을 대하는 정신적인 측면에 있다. ㉠동양에서는 그림을 인격 수양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렸다. 따라서 화가의 정신 세계와 인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사물을 보면서 그 모습을 그리거나, 대상에 따라서 색을 칠하거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 등은 그림을 그리는 기초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주로 장식이나 기록적인 측면, 그리고 표현 방법을 중시하여 그림을 그렸다. 대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느냐가 중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양 미술에서는 원근법이나 빛에 따른 대상의 변화, 형태를 파악하는 방법 등이 발달하였다.

동양화와 서양화는 그림을 그리는 재료도 달랐다. 동양에서는 농담(泥丹)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먹과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 ㉢먹과 붓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한지나 화선지 같은 종이나 결이 고운 비단이었다. 서양에서는 주로 캔버스에 유화 물감과 기름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캔버스는 아마나 면으로 짠 천에 아교 같은 것을 칠하여 만든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동양화와 서양화는 매우 다르게 변화했다. 먹으로 그릴 경우,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에 잘 그려야 했다. 말이 쉽지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화면 전체를 그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했다. 종이를 바꿔가며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그리는 공부를 해야 했다.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대강의 형태를 스케치하고 그 위에 차근차근 색을 칠해 가면, 나중에는 칠한 부분이

두꺼워져서 표면에 질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서양화는 덧칠을 통해서 그림의 형태와 색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동양화에서는 선으로 기늘게 그리는 기법이 발달하였다. 그래서 동양의 미술을 선의 예술이라고 한다. 반면에 서양화는 선보다는 명암이나 색을 강조한다. 평면인 캔버스에 어떻게 대상과 닮게 입체적으로 그리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서양화는 배경까지 색칠하기 때문에 캔버스 색을 그대로 두는 일이 없다. 하지만 동양화는 하얀 여백을 살려서 공간을 처리한다. 동양화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여백을 보고 미완성 작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백의 미는 작품 구도를 염두에 두고 추구하는 동양화의 손꼽히는 특성 중 하나이다.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 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닦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안에(거기도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차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를 동광 학교(必 Γ?θ)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째 삼십 전, 둘째 번에 오십 전 □ 아침 댓바람에 그리 흥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 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 침지는 십 전짜리 백동화 서 폰, 또는 다섯 폰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제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뻐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켄겉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령탕 한 그릇도 사다줄 수 있음이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①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 모로도 못 늙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 때도 김 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 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 침지의 말에 의하면,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당치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 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불거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땅긴다, 배가 켄긴다 하고 눈을 홑뜨고 지랄을 하였다. 그 때 김 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 년, 조량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루 뜨지 못해!"

하고 김 침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홑뜬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 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령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언어 영역

"이런 오라질 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령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사주는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인제 설령탕을 사 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세살먹이)에게 죽을 사 줄 수도 있다. - 팔십 전을 손에 쥐 김 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중략>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썹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려보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엉 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도 들은 듯싶다. 딸국딸국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싶다.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먼."

하고, 탄 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려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 침지는 인력거 채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겨주춤 멈춰 있지 않은가.

"예, 예" 하고 김 침지는 또다시 달음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 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재겨 놀려야만 실새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중략>

김 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맛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 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 침지는 방문을 활각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추기(□E) □ 떨어진 샷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내,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내, 병인의 땀 섞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김 침지의 코를 찔렀다. 방안에 들어서며 설령탕을 한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 오라질 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등결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에 뻑뻑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뺏어놓고 운다. 운대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어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 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 년!"

"……."

"으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다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으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버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천정만 바라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이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 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비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않은 것은? [1 점]



(가) 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도 중요하다. 반언어적(???) 표현은 어조, 음색, 속도, 고저, 장단, 강약 등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비언어적(???) 표현이란 얼굴 표정, 몸동작, 눈맞춤 등을 통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담화 상황과 맥락을 형성한다.

동일한 말이라도 어조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철수가 갔어." 라는 문장의 끝을 올린다면(□) 의문을 나타내지만, 끝을 내린다면(□) 사실을 나타낸다. 끝을 끊어(□) 말하면 감탄을 나타내지만 끝을 끌어(→) 말하면 사실에 대한 회의를 나타낸다. 말하는 속도는 말하는 이의 성격이나 내용, 중요도, 상황 등과 관련이 있다. 소리의 고저도 표현에 영향을 준다. 소리를 높게 내면 흥분, 긴장, 경고, 분노, 열망 등의 표시가 되고, 반대로 낮게 내면 확신, 안정, 위엄, 자신감 등의 표시가 된다.

얼굴 표정이나 몸동작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완해 준다. 말할 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눈맞춤도 그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 골고루 시선을 주는 게 좋다.

이처럼 표현과 이해의 의사 소통에서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적 표현 못지 않게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 한국인의 행동을 규정지었던 <소학>이나 <내훈>에서는 '비록 비어 있되 □찬 것처럼 하며, 사람이 없되 있는 것처럼 하라.'고 가르쳤다. 방에 들기 전에 반드시 건기침을 하라 했고, 문밖에 신 두 켤레가 있는데 말소리가 없으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은 예리한 판단력으로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에 해당된다. 한말(??)의 미국인 선교사 게일(J.S. Gale)이 지적했듯이 한국인은 기침으로 백 마디 말을 할 줄 안다.

통찰의 원인으로는 한국인이 정착 농경민이었음을 들 수가 있겠다. 농경은 파란이 없는 규칙적인 작업을 요구하기에 사람끼리 서로 말이 없어도 영위할 수가 있었다. 또한 대지와도 무언의 대화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유럽은 정착보다는 이동이, 안정보다는 전쟁이 많았던 생활 환경 때문에 정확한 의사의 교환이 필요했다. 곧 변화가 심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통찰에 의한 의사 소통이 발달되기 어려웠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유럽의 언어는 정확한 의사 전달을 중시하는 면이 있다.

상호간의 조화나 안정을 위해서는 통찰보다 더 좋은 미디어가 없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거기에 맞는 대화와 행동을 취함으로써 친밀한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권이 넓어지면서부터 서구식의 정확한 의사 소통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통찰의 습성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많은 실수나 손해, 오해를 빚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통찰이라는 의사 소통의 문화를 살려 나가되, 때에 따라서는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해 그것을 뿌리친다. 그러자 점순이는 몹시 화가 나 눈물까지 흘리며 뺨하니 달아난다.

- 김유정, '동백꽃'에서 -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데, 어머니는 옥희를 향해 곱게 눈을 흘긴다.

- 주요섭,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 -

최서해, '탈출기'에서 -

언어 영역



기록하는 연습을 해 볼 때, 그 구분이 적절한 것은?

(가)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재?)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 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노승과 그의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몸소 후원에 나가 늦은 저녁을 지어 왔다. 저녁을 먹인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더운 물을 떠다 주는 것이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스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을 들어주는 데에 크게 감동한 것이었다.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에게는 백천 마디 좋은 말보다는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던 것이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한 노사((재?)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내게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노사의 상(?)이다.

산에서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이고 만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없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곳곳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사뭇사뭇 내려 쌓이는 그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깊은 밤,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울려올 때, 우리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에 넘어지는 그 의미 때문일까. 산은 한겨울이 지나면 앓고 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사아뱃티이의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귀(???)의 양굴리마알라를 귀의시킨 것도 부처님의 불가사의한神通력이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비였다.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귀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길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게 만든 것도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스하게 내려 쬐는 햇살이 아니었던가!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인 것을.

- 법정, 설해목(???) -

(나) 일하는 사람의 그림자로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차치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떼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것을 '탁(?)'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박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탁(?)' '족(?)'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